

고대하던 비 왔지만...해갈에는 역부족

광주·전남 오늘까지 최대 20mm...가뭄 해소 100mm 필요 저수율 50% 아래로...10·11일 비 오지만 강수량 적을 듯

6일 광주·전남에 단비가 내린 데 이어 7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휴일인 이날 시작된 비는 7일 낮에 그칠 전망이다.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에 19.5mm, 완도 여서도 17mm, 완도 청산도에 11mm의 비가 내렸다. 이밖에 보성 8mm, 장흥 6mm, 해남 5.5mm, 나주 5.5mm, 장성 4.5mm, 담양 3.5mm, 광주 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7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5~20mm, 남해안에 10~3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모처럼 반가운 비가 내렸지만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이번 비로 가뭄이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내륙에는 5~20mm의 비가 예상돼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이와 관련, 가뭄을 해소

하기 위해선 전남에 70~100mm의 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확보해놓은 공사 보유 저수지의 저수율이 50%대까지 줄어들었다.

농어촌공사가 측정한 이날 전국 평균 저수율은 50.1%로, 평년 65.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저수율은 영광 49%, 광주·장성 47%, 무안 46%, 나주 42%, 진도 40%, 고흥 3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자원 확보는 물론, 물 재할용을 통해 가뭄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분간 우수개발 등 농업우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

정”이라며 “가뭄이 심각한 지역의 농작물 생육, 피해상황 등도 파악해 가뭄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는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로 비가 내리더라도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3, 4, 5월 누적 강수량은 114mm인데 이는 평년(293.5mm)과 비교해 39%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비의 영향으로 7일과 8일 미세먼지와 황사의 농도는 ‘보통’이나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 해질 19:45 | 달 뜨기 17:36 | 달 지기 03:57

아쉬운 비
낮부터 비가 갠 후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18/23	보성	18/22	순천	18/22	보성	18/22
목포	18/22	영광	18/22	영광	18/22	영광	18/22
여수	20/23	영광	18/22	진도	18/22	진도	18/22
나주	17/22	진도	18/22	전주	19/22	전주	20/21
완도	19/22	군산	18/20	군산	18/20	군산	18/20
구례	17/22	홍산도	16/21	홍산도	16/21	홍산도	16/21
강진	18/23	홍산도	16/21	홍산도	16/21	홍산도	16/21
해남	17/22	홍산도	16/21	홍산도	16/21	홍산도	16/21
장성	17/22	홍산도	16/21	홍산도	16/21	홍산도	16/2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서	1.0~2.5	서~북서	0.5~1.5	
남해	남서~서	1.5~3.0	서~북서	1.0~2.0	
남해	남서~서	1.0~2.5	서~북서	0.5~1.0	
남해	남서~서	2.0~3.0	서~북서	1.0~2.0	
남해	남서~서	2.0~4.0	서~북서	1.5~2.5	

◇생황지수

경고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06:12	00:54
		18:16	12:52
		01:44	07:39
		13:40	20:21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	☀	☁	☁	☁	☁	☁
14/25	17/28	20/27	20/26	19/29	19/28	18/28

‘성과급 분배 갈등’ 서구청-노조 16일 끝장토론

구청 “나눠먹기 안돼” vs 노조 “공평 분배 문제 없다” 공방 양측 안전·일정·방식 두고 최종 협의...3년 논란 종지부 기대

공무원 성과급 분배 논란에서 촉발된 광주시 서구와 공무원노조 간의 ‘3년 갈등’이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구청장, 노조 대표 토론회’를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는다.

성과관리시스템(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공무원 사망, 노동조합 구청 파트너 인정 등 토론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구청 측과 노조 측이 어느 정도 입장을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토론회를 통해 극적으로 마칩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6일 서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지역본부 서구지부(1노조)에 따르면 구청과 1노조는 지난 3년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협의에 따라 ‘마라톤식 끝장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구는 민선 6기 들어 성과상여금 재분배 논란과 내부 자유계산관 폐쇄 등으로 구청장과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임우진 청장 취임 이후 구청 측은 “나눠먹기 식 성과급 재분배는 위배”라고 제동을 걸었고, 노조 측은 “공무를 순위를 매겨 지급된 성과급은 그 자체로도 어불성설이며, 일단 개인별 임금된 성과급은 개인 재산이므로 공평하게 나누더라도 불법이 아니다”며 맞섰다.

결을 멈추고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이른바 끝장 토론을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청 측은 임우진 청장 등 간부 공무원 3명과 전대홍 제1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토론회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1노조 측은 양측 대표자 1명씩이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토론 주제로는 ▲실적주의 성과관리시스템 폐지 ▲업무시간에 숨진 공무원에 대한 과사 인정(2016년) ▲제1노조 지위(구청 파트너 인정)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 및 가동 등이지만,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 양측은 토론회에서 다룰 안건과 일정, 방식을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전대홍 1노조 위원장은 “범외노조인 우리와 대화하지 않겠다던 구청장이 태도를 바꿔 토론 테이블에 나온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양측이 진솔한 대화로 갈등을 끝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양측의 지속적인 갈등을 끝내려고 사전 협상을 진지하게 임했다. 임우진 구청장과 노조 위원장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토론회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공원 현충탑 둘러보기 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 앞 광장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위패봉안소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수능 정시 불확실성 커져

영어 반영 비율 미확정...광주교육청 지원 점수표 제공 않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현장 교사들의 진학 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도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 모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학교별 영어영역 반영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절대평가 전환으로 다른 영역 반영 비율에 미칠 영향 등도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제시해오던 ‘수능 모의평가’ 자체점 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대학 지원 가능점수표’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문·이과로 나누어 주요 대학 학과별 지원가능 점수를 예측,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해왔다.

교육청 진학지원단은 “전년도와 달리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을 과목별 원점수 산정 과정에서 제외하다보니 나머지 과목만으로 주요 대학 학과별 지원가능 점수를 예측하는 게 무의미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의평가 자체점 결과로 목표대학에 지원했을 때 합격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어 절대평가 전환으로 등급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도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별 반영 비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재 “혼잣말 영어 욕설 모욕죄 아냐”

현재는 6일 모욕죄로 기소돼 기소유에 결정은 받은 이모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fucking’은 ‘crazy’를 강조하는 수식어로 ‘대단히’, ‘지독히’, ‘매우’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crazy’

는 ‘미친’, ‘정상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열광하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처구니없다’ 정도의 의미인 이 같은 표현에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소유에 처분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점입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천시장

2~5층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층 743㎡ | 전문병의원 및 카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당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 7천원부터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출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